

지시 연쇄 삼각형: 조응과 연상, 직관적 동일 지시*

김 경 석
(충북대학교)

Kim, Kyungsuk. (2017). The Triangle of Referential Chains: Anaphor, Association and Intuitive Equi-reference. *Language Research*, 53.3, 391-414.

This paper aims to «reach for» the ‘referential chains’ like an enormous iceberg on the base of Chastain (1975), Corblin (1995) and Schnedecker (2014). Chastain defined the term as follows: the referential chains (R-chains) are formed between contexts, if one expression in the chain refers to a given thing then so do all the others. But these chains are not necessarily formed only between different contexts. Corblin designed the anaphoric chains (A-chains) and the R-chains as composed of referential relation and associative one respectively. However, it is proved that there is no acceptable relation which is not anaphoric but associative in the phenomenon of languages. As a result, we attempt to answer the serious matter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intuitive chains (I-chains) based on the equi-reference’: R-chains are a contrapuntal function of the last one, A-chains, and associative anaphoric chains (AA-chains) in the form of a solid triangle with three vertices. The two former are on a basis of co-/equi-reference, though the two latter in accordance with anaphor.

Keywords: anaphor, coreference, association, intuitive equi-reference, R-chains, A-chains, AA-chains, I-chains

1. 서론

‘지시(référence)’란 지시 표현과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에는 첫째와 둘째, 셋째로 구분되는 ‘돼지 3형제’와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 한 마리가 등장하고, 그 지시 표현들은 대명사나 지시사, 소유사, 한정 명사구 등으로 재생산된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표지가

* 논문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하였고, 아직도 남아 있을 문제는 순전히 연구자의 몫이다.

단수로 분리(ils → il₁/il₂)되거나 단수들이 융합(il₁/il₂ → ils)되기도 한다. 동일한 지시물을 표상하는 명사구들의 묶음을 ‘지시 연쇄(châînes de référence: R-연쇄)’¹⁾라 이름하고 조응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묶음을 ‘조응 연쇄(châînes anaphoriques: A-연쇄)’라고 하면, 다음의 (1)에 나타난 지시 표현들 사이의 관계는 (2)처럼 정리된다.

- (1) **Les trois petits cochons**²⁾ veulent vivre **leur** vie et [**ø**] quittent le foyer familial pour tenter **leur** chance dans le monde. Le premier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de paille. Le deuxième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faite de bois. Le troisième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de briques et de ciment.

Le grand méchant loup parvient à détruire les maisons des deux premiers petits cochons en soufflant dessus et les dévore. En revanche, il est impuissant contre celle du troisième petit cochon.

Pour le faire sortir de sa maison, le loup lui propose d’aller chercher des navets avec lui. Mais le cochon sort tôt le matin et rentre chez lui avec les navets avant l’arrivée du loup. Le loup retente sa chance et propose au cochon d’aller cueillir des pommes. Le cochon part à nouveau avant l’heure, mais ayant eu du mal à grimper à l’arbre, le loup arrive à son tour. Le cochon lance alors une pomme très loin en proposant au loup de la goûter. Pendant que le loup la ramasse, il se sauve. Le loup persévère et propose au cochon d’aller à la foire. Arrivé le premier à la foire, le cochon achète une baratte. Sur le chemin du retour, il voit venir le loup : il se cache alors dans la baratte et dévale la pente, ce qui fait peur au loup.

Ce dernier retourne à la maison du petit cochon et découvre que c’est le petit cochon qui lui a fait peur. En colère, il décide de rentrer par la cheminée pour dévorer le cochon. Mais il tombe dans une marmite de soupe bouillante et le cochon le

1)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지시의 문제를 추적한 Chastain (1975:213)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2) 굵은체, 이탤릭, 밑줄, 네모 칸 등으로 표시된 지시 표현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 형식을 의미한다. 표지가 겹치는 것 - 예를 들어 밑줄과 이탤릭 - 은 지시가 융합된 것이다.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i / j / k’와 같은 동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의 지시 표현이 출현하고 이 지시 표현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mange pour son dîner. (*Les trois petits cochons*, https://fr.wikipedia.org/wiki/Les_Trois_Petits_Cochons)

- (2) a. 대명사 대체: {les trois petits cochons - leur - ø}; {le premier petit cochon - se}, {le deuxième petit cochon - se}, {le troisième petit cochon - se}, {une pomme - la}
- b. 대명사, 명사, 지시사, 소유사 대체 혹은 반복: {le grand méchant loup - il/le/se/lui - le loup - son/sa - ce dernier}; {le troisième petit cochon - le cochon - le petit cochon il/le/lui - son}
- c. 지시 분할: {les trois petits cochons → le premier petit cochon, le deuxième petit cochon, le troisième petit cochon}
- d. 지시 통합: {le premier petit cochon, le deuxième petit cochon, le troisième petit cochon → les / les deux premiers petits cochons}, {une maison de paille / une maison faite de bois / une maison de briques et de ciment → les maisons}
- e. 연상 관계: {la maison → la cheminée}

연쇄의 첫 고리(maillon)를 차지하는 개체표현³⁾은 (공)대명사(leur/ø)나 다른 명사적 표현(le loup/ ce dernier), 지시사나 소유사((le grand méchant loup - son/sa - ce dernier) 등으로 대체되거나 반복되고, 지시가 분할(les trois petits cochons → le premier petit cochon)되거나 융합(le premier petit cochon/le deuxième petit cochon/le troisième petit cochon → les deux premiers petits cochons)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조음(anaphore)이라 하고, 이는 공지시(coréférence)⁴⁾ 관계나 연상(association)에 의해 생성되고 해석된다. 전자의 경우, 선행 명사구의 핵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한정사만 달라지는 충실 조음(un homme··l'homme/cet homme)과, 상위어 조음(un boeuf··l'animal, ma Porsche··cette voiture) 및 다시 쓰기 조음(Paul··cette andouille/cet agrégé de philo), 대명사 조음(Paul··Jacques·· il/celui-ci/ce dernier/le second) 등의 불충실 조음으로 나뉜다. 이들

3) Chastain (1975:194-195)은 지시 대상에 대한 언어 표현으로 'singular term'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를 '개체표현'으로 옮긴다.

4) Corblin (1995:182)에 나타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두 개의 개체 표현이 한 텍스트에서 동일한 개체를 가리키면 공지시된 것이다(On parle de *co-référence* quand il se trouve que deux termes, interprétables de manière indépendante désignent en fait, dans un texte, le même individu).

과 달리 (2e)는 공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들 사이의 상투성(stéréotypic)이나 분의성(méronymie)에 입각한 연상 조응(anaphore associative)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조응이 언어표현들 사이에 형성되는 해석 의존 문제라면, 지시는 언어표현이 대상물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A-연쇄와 R-연쇄 사이의 관계 및 특성을 기술하는 동시에, 연상 조응은 공지시되는 다른 방식으로 지시에 관여하므로 이 역시 독립된 연쇄로 설정하고 세 유형의 연쇄가 담화의 정합성을 위해 대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A-연쇄와 R-연쇄를 구분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동시에 R-연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3절에서는 Chastain (1975)의 제안을 확장한 Corblin (1995)의 이론에 대한 수정 방안을 동일 지시(équivalence)와 연상 조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할 것이다. 4절에서는 간접 지시라는 특성을 갖는 연상 조응(anaphore associative)은 별개의 독립된 연쇄이며, 직관적 동일 지시 관계(lien d'équivalence intuitif) 역시 연쇄를 이루어 A-연쇄와 함께 단단한 삼각 구조로 R-연쇄 체제를 구축한다고 결론한다.

2. R-연쇄의 개념과 문제

조응과 지시, 문맥(contexte)⁵⁾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Chastain (1975)은 A-연쇄와 R-연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3) a. **A-연쇄** : 동일 문맥 내에 출현한 개체표현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이 개체표현들은 **조응적으로** 연쇄된다.⁶⁾
 b. **R-연쇄** : 서로 다른 문맥에 속한 개체표현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이 개체표현들은 **지시적으로** 연쇄된다.⁷⁾

(3)의 정의에 의하면, A-연쇄는 동일한 문맥 내에 출현한 조응 표현과 선행사 사이의 관계이고, R-연쇄는 문맥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개체표현들 사이의 관계 유형이다. Chastain은 A-연쇄인 (4)와 구분되는 R-연쇄인 (5)를 통해

5) 단어와 구, 문장, 단락 등으로 구성되어 발화된 언어 담화를 'context (문맥)'으로 Chastain (1975:194)은 정의한다.

6) Chastain (1975:214) "Let an **anaphoric chain** be a sequence of singular expressions occurring **in a context**, such as that if one of them refers to something then all of the others also refer to it."

7) (Ibid. 52) "We have **referential chains between contexts**, (...) if one expression in the chain refers to a given thing then so do all the others."

두 개념을 구분한다.

(4) a. At eleven o'clock that morning, **an ARVN officer** stood *a young prisoner*, bound and blindfolded, up against a wall. **He** asked *the prisoner* several questions, and, when *the prisoner* failed to answer, beat *him*, repeatedly. An American observer who saw ~~the beating~~ reported that **the officer** “really worked *him* over”. After ~~the beating~~, *the prisoner* was forced to remain standing against the wall for several hours. (J. Schell, *The Village of Ben Suc*, 1968)⁸⁾

- b. I. ‘that morning’;
 II. ‘an AVRN officer - he - the officer’;
 III. ‘a young prisoner - the prisoner - the prisoner - him - him - the prisoner’;
 IV. ‘a wall - the wall’;
 V. ‘an American observer who saw the beating’;
 VI. ‘the beating - the beating’.

(5) a. Houston, Texas, March 10(UPI) - **Dr. Michael DeBakey** stated at a press conference today that an artificial heart could be developed within five years. **The fame Baylor University heart surgeon** said that such a development would make transplants unnecessary.

- b. (I said to my friend) “**A doctor in Texas** claims that artificial hearts will be developed within five years.”⁹⁾

(4b II-IV)로 기술된 A-연쇄에서는 모두 부정 관사를 가진 개체표현이 정관사로 한정된 명사구나 대명사와 짝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비한정적 표현이 연쇄의 첫 고리에 출현하고 대명사 및 지시사, 소유사를 포함하는 한정적 표현들은 조음적으로 연쇄된다.¹⁰⁾ 이렇게 작동하는 조음 연쇄와 다른 성격을 가진 지시 현상에 주목한

8) Chastain (1975:205).

9) (Ibid. 212-214).

10) Chastain (1975:205-206)에 의하면, (I)은 작품의 서두에서 언급된 1967년 1월 8일 아침으로 이 문맥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은 장거리 연쇄의 경우이고, (V)의 연쇄는 향후 ‘the American observer’나 ‘he’, ‘the American’과 같은 한정 명사구로 발전하리라 추정되는 잠정적 연쇄 고리이

Chastain은 (5a)와 같은 신문의 기사를 본 후 (5b)에서처럼 친구에게 언급하는 상황을 분리하여 설정하면서, 후자에 표현된 ‘a doctor in Texas’가 발화자가 신문에서 읽었던 ‘Dr. Michael DeBakey’이지만 구체적 정보를 생략한 비한정적 명사구로 표현한 것이다. 비한정 명사구가 한정 명사에 지시적으로 의존하는 이 관계는 반대의 경우인 A-연쇄와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개체표현은 A-연쇄를 이루지 못하나, 지시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이므로 새로운 지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hastain은 ‘서로 다른 문맥에 위치한 개체표현들이 지시적으로 관련될 때’를 전제로 R-연쇄를 독립시켜 지시 현상에 접근한다.

Chastain의 이러한 기술에 대해 Corblin (1995:157-160)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의문을 던진다.

- (A) A-연쇄와 R-연쇄는 언제나 비한정적 개체표현으로만 시작되는가?
- (B) R-연쇄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문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rblin은 ‘개체표현의 연쇄 내 위치’와 ‘문맥들 사이 관계’라는 Chastain의 R-연쇄 준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두 유형의 연쇄는 개체표현들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첫 위치를 ‘I(nitial)-위치’ 그 외 경우를 ‘N(on-initial)-위치’라 하면서 Chastain의 가정을 Corblin (1995:157)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6) 연쇄 상의 비한정 표현 X가 있다고 가정할 때, X가 I-위치에 있으면 A-연쇄이고, N-위치에 있으면 R-연쇄이다.¹¹⁾

(6)에 따르면 (4)에서 관찰된 연쇄는 비한정적 개체표현으로 시작하여 한정적 개체표현으로 이어지므로 조용적이고, (5)에 나타난 연쇄는 반대로 한정적으로 기술된 개체표현이 비한정적 개체표현을 환기하므로 조용적일 수 없으나, 지시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지시적으로 연쇄된다. Corblin (1995:157)은 위치와 관련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다. 반면에 정관사를 가진 명사구로 이루어진 (VI)의 연쇄가 조용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문체적 기교가 발휘된 것으로 첫 고리에 해당하는 ‘a beating of the young prisoner by the ARVN officer’가 행간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11) Soit x une expression indéfinie dans une chaîne ; si x est dans une position-I, la chaîne est une chaîne anaphorique ; si x est dans une position-N, la chaîne est une chaîne référentielle.

- (7) a. 비한정적 개체표현만이 A-연쇄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다.
 b. A-연쇄의 첫 개체표현은 반드시 비한정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7)의 조건은 한정적으로 기술된 명사구와 고유 명사는 A-연쇄의 I-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경험적 오류를 야기한다. Schneddecker (2014:3)에서 발췌한 다음의 예문에서 고유 명사 ‘Muyassar₁’은 공지시 관계의 첫 고리에 해당하는 I-위치에 출현하여 연쇄를 끝어간다.

- (8) *Originaire du Tadjikistan, **Muyassar₁** a été tabassé en décembre 2011 par des hooligans du Spartak Moscou. **Il** subit de plein fouet le racisme dont sont victimes les Tadjiks en Russie. Grand et athlétique, le buste droit, la voix posée, **Muyassar₂** dégage une certaine fierté. **Le jeune homme** est né au Tadjikistan il y a 25 ans, dans la région montagnarde du Pamir. En 2006, **son** diplôme de commercial en poche, **il** met le cap sur Moscou. (Nouvel Observateur, 29/02/12)*

예문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I-위치에 자리한 개체표현 ‘Muyassar₁’은 대명사(il)나 소유사(son), 한정 명사구(le jeune homme) 등으로 진화하면서 공지시 연쇄를 이룬다. 기억의 환기가 필요하거나 강조를 위해 혹은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조응 표현이 반복되거나 대체되지 않고, 지시적으로 독립적인 개체표현 ‘Muyassar₂’가 출현한다. 이 개체표현은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생성하였고 ‘Muyassar₁’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Corblin (1995)은 공지시와 동일 지시를 구분하는데, 의사 소통 과정에서 출현한 명사구에 대한 우연한 정보나 발화자의 의도에 의해 어떤 개체표현 (고유 명사, 비한정 명사구, 문맥 한정 명사구)이 다른 개체표현과 지시적으로 연관되면 동일 지시물(équi-référent)¹²⁾을 가리킨다. 따라서 N-위치에 출현한 고유명사는 조응 요소가 아니므로 A-연쇄를 이루지 못한다. (7)의 예측에 의하면, 고유 명사는 A-연쇄의 I-위치에 출현할 수 없으므로 (8)은 수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완전히 문법적

12) Corblin (1995:171) “1. Certaines connexions sont construites sur des bases linguistiques. Les facteurs communicatifs et pragmatiques affectent alors seulement la sélection du contexte pertinent et de l’antécédent. Tel est le cas pour les relations antécédent/pronom, les GN démonstratifs, et les usages anaphoriques du défini. 2. Certaines connexions s’établissent sur des bases communicatives. Des expressions sont associées à un désignatum en vertu de connaissances contingentes, et si nous les traitons comme équi-référentes, c’est uniquement en fonction de connaissances constituées dans la communication. Tel est le lien qui unit par exemple des occurrences de nom propre, de descriptions définies complètes, et d’indéfinis.”

인 담화에 해당한다. 한정 명사구가 I-위치에 나타난 우리의 예문 (1)도 ‘비한정 명사구의 I-위치’ 제약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 (1) **Les trois petits cochons** veulent vivre **leur** vie et [ø] quittent le foyer familial pour tenter **leur** chance dans le monde. *Le premier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de paille. Le deuxième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faite de bois. Le troisième petit cochon se construit une maison de briques et de c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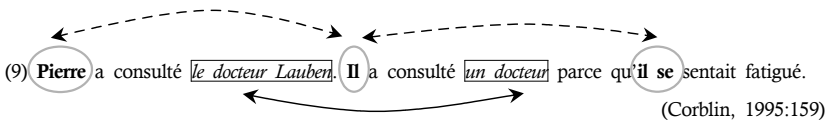
Corblin (1995:172)은 지시와 관련한 정관사의 용법¹³⁾을 ‘완전한 한정 기술 (descriptions définies complètes)’과 ‘불완전한 한정 기술(descriptions définies incomplètes)’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문맥에서 관계가 확인되는(hérité du contexte) 경우이고 후자는 연상 조응을 이루는 정관사 용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1)에서 I-위치에 나타난 한정 기술은 Corblin이 제안한 그 어떤 한정 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 기술이 I-위치에 출현한 것은, (주 4)에서 언급된 Chastain의 설명처럼 문체적 기교가 발휘되어 I-위치에 해당하는 ‘il y avait **trois petits cochons** dans un village’가 행간에 숨어 있거나, 아기 돼지 세 마리가 그려진 그림과 함께 동화가 시작하므로 한정 기술이 그림 속의 돼지를 직시적으로 가리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추정이 온당하다면, 담화의 I-위치에는 완전한 한정 기술이나 불완전한 한정 기술은 출현할 수 없으나, 직시적 한정 기술이나 선행사가 행간에 숨어 있는 한정 기술의 개체표현과 고유 명사는 A-연쇄의 I-위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7)의 필요충분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 (7) a. 비한정적 개체표현과 직시적 표현, 고유 명사는 A-연쇄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다.
 b. A-연쇄의 I-위치에는 완전 한정 기술이나 불완전 한정기술의 정관사 명사구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R-연쇄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문맥에 위치한 개체표현들이 맺는 지시 관계에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Chastain (1975:214)은 A-연쇄를 문맥 내 요소들 사이의 관계로, R-연쇄를 서로 다른 문맥 사이의 동일 지시 관계로 진단한다. 담화 내부의 동일 문맥에서 관계를 이루는 (4)와 두 개의 담화 문맥이 필요한 (5)를 비교하면 이 예측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Corblin (1995)은 Chastain이 ‘문맥이란

13) 정관사의 총칭적(générique) 용법은 특정한 지시물을 갖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뭔가를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것¹⁴⁾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전제로 A-연쇄를 가진 (4)에는 ‘단독 담화(discours monologique)’를 적용하고 R-연쇄를 이루는 (5)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언급하는 두 개의 담화를 병치한다고 지적한다. 문맥 내적 관계(relation intra-contextuelle)와 문맥 사이 관계(relation inter-contextuelle)라는 ‘경계 제약(contrainte de frontière)’이 관건이라면, R-연쇄는 단 하나의 문맥 내에서서는 불가능하고 A-연쇄는 단 하나의 문맥 내에서만 연결되어야 한다. Corblin (1995)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 동일 문맥 내에서 이 두 연쇄가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 두 문장이 단 하나의 단독 담화로 공통의 문맥이라면, ‘un docteur’는 R-연쇄에 의해 ‘le docteur Lauben’과 동일 지시되고 ‘il/se’는 A-연쇄를 통해 ‘Pierre’와 공지시된다. 따라서 ‘문맥 내적 vs. 문맥 외적’이라는 준거는 이 두 유형의 연쇄를 합당하게 허용하지 못한다. 이 이유는 ‘le docteur Lauben’이 R-연쇄의 I-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은 아니다. Chastain (1975:215-219)에 의하면, 고유 명사는 지시적 표현과 동일한 문맥 내에 있을 경우 조응 관계를 이루고, 다른 문맥에 있는 개체표현과는 R-연쇄를 이루는데, 이는 고유 명사가 조응적으로도 연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A-연쇄의 I-위치 및 N-위치, R-연쇄의 I-위치 및 N-위치 어디나 출현할 수 있다는 오류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시적으로 독립적인 고유 명사는 두 연쇄의 I-위치에 자리하여 조응적 혹은 지시적으로 연쇄를 이끄는 첫 고리가 될 수 있으나, (8)의 ‘Muyassar₂’처럼 N-위치에 출현하면 조응적으로 결속되지 않고 ‘Muyassar₁’과 직관적으로 동일 지시되는 R-연쇄라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Chastain의 정의와 관련한 이 두 가지 불완전함 외에도, R-연쇄 개념은 연쇄 자체의 속성과 길이, 경계 및 연쇄를 이루는 각 고리의 본질과 구성, 개수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R-연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은 무엇인가? Chastain이 언어학에 던진 화두는 단위 문장의 차원이나 최소 문맥 내에서 언어 표현과 지시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만으로 지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의 내적 관계에서 담화 간 혹은 담화와 언어외적 세계 사이의 관계까지로 개념을 확장하고, ‘언어학의

14) Chastain (1975:175) “Anything which expresses something or represents something is a context.”

주 대상이 랑그'라는 Saussure적 관점에서 벗어나 '파롤' 혹은 실제적 '언어 현상'을 기술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학의 진정한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생적 언어 체계라고 선언하여 언어 사용(parole)보다는 언어 체계(langue)에 우선권을 두었던 Saussure나 Chomsky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문법 경계 내에서 형식적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우리가 만약 언어를 인지적·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분리한다면 언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을 기술하려는 우리의 아주 확고한 시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15)

둘째, Schnedecker (2014:4)는 연쇄를 이루는 고리의 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련의 공지시 개체표현만이, 인물이나 사건, 추상적 실체와 같은 담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적 표현들의 연쇄를 이룬다"는 Charolles (1988:8)의 지적이 정당하다면, 언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된 고리들만이 연쇄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화는 지시물을 환기하는 모든 요소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강하다. Schnedecker (2014:4)에 의하면, 다음의 단락에 출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수신자가 지시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0) (Drew Barrymore)--- **Elle boit** son thé glacé à la paille et **0 répond** du tac au tac, **en ponctuant** régulièrement **ses** phrases du fameux «F word». **Drew Barrymore**, née dans les paillettes du 7e art, **a** le vocabulaire et l'énergie d'une New-Yorkaise. Plus menue que prévu - en slim gris, T-shirt Michéy Mouse et derby noir - le teint naturel et le sourcil sérieux, **elle est** aux antipodes de l'image que l'on se faisait d'**elle**. Une hippie-chic frivole et bouillonnant ? Pas seulement. **Drew**, l'aventurière extravertie capable de parcourir le globe avec sa meilleure amie(Cameron Diaz) pour une émission écolo, de montrer ses seins a Daivd Letteman en plein talkshaw télé, s'est visiblement assagie. (Elle, 2010.8.20)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Drew'와 공지시를 이루는 개체표현 외에도, 밑줄로 표시된 요소들인 영 대명사 및 문법적 일치, 지시물에 대한 암시적 표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 변화 등이 모두 3인칭 단수 여성으로 일치되면서 'Drew'를 든든히 지탱한다. 이러한 문법 장치들이 치밀하게 엮이면서, Zufferey & Moeschler (2012:253) 방식으로 '발화 혹은 문장들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혹은

15) 박여성(2016:228-229).

복수의 화제를 위한 담화의 일관성(cohérence)을 담보한다.’

셋째, 문장 차원에서 단락이나 텍스트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언어 외적 현실까지 확대할 수도 있는 문맥의 경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Proust의 방대한 작품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문맥은 소설 전체인가 아니면, 각 권 혹은 사건이나 에피소드인가? 작품 전체나 작가의 작품 세계 전부를 문맥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분석의 지난함’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각 텍스트는 여러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뉘고 그 각 부분은 ‘정보 덩치(information blocks)’라 할 수 있는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Heurley (1997:190)의 진술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Charolles (2009)이나 Vigier (2005)는 하나의 작품을 여러 개의 의미적 혹은 편집 상의 조각으로 나누고, 이를 추론이 가능한 ‘담화 영역(domains discursifs)’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Guillot (2009)는 에피소드나 사건과 같이 직접 연관된 담화단을 대상으로 하지는 입장을 취한다. 전자의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문맥과 지시를 표현하는 전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병치적 방식(approches collocatives)’¹⁶⁾이고, 후자는 텍스트에서 공간을 나누는 단락과 같은 요소에 의해 R-연쇄의 경계가 확정된다는 ‘구조적 접근 방식(approches structurales)’¹⁷⁾ 혹은 ‘위계적 모형(modèles hiérarchiques)’¹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 명사가 출현하면, 기존의 연쇄 고리가 일단 끊어지면서, 지시 해석에 변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새로운 연쇄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지명과 같은 지시 표현은 대체로 단락 단위와 체계적으로 일치한다. (11a)의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Corée du Sud’ 항목과 (11b)로 주어진 어린이의 두서 없이 나열된 담화를 비교하면, 적정 연쇄를 가진 텍스트의 지시 효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11) a. **La Corée du Sud**, (…), est un pays d’Asie de l’est qui couvre la moitié sud de la péninsule coréenne. **Sa** capitale est Séoul. La langue officielle est le coréen, (...).

Au nord, **son** unique frontière terrestre (...) est constituée par la zone démilitarisée. **La Corée du Sud** est bordée, à l’ouest par la mer Jaune, par la mer du Japon à l’est et par le détroit de Corée au sud.

Actuellement, **la Corée du Sud** est classée douzièm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selon le calcul du produit inté-

16) Marslen-Wilson et al. (1982:349).

17) Toole (1996:267).

18) Huang (2002:309).

ieur brut en parité de pouvoir d'achat et quinzième selon le critère monétaire traditionnel. **Elle** est à la fois le pays d'Asie de l'Est avec l'IDH le plus élevé, le taux de suicide le plus élevé et la fécondité la plus faible. (...) ¹⁹⁾

- b. Nous sommes partis de l'école à bicyclette pour aller à la côte découvrir **la dune**. L'euphorbe est une plante toxique, elle fait gonfler la langue et étouffe. Les plantes les plus répandues sont l'oyat et le chiendent. **Les plus vieilles dunes** ont plus de cinq mille ans. La criste marine est une plante comestible. Madame l'inspectrice accompagnait M. Berger. Nous avons continué la visite avec eux. Puis nous sommes rentrés à l'école. (Exemple de Turco, cité par Reichler-Béguelin *et al.*, 1988:132)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la Corée du Sud'라는 고유 명사가 다시 나타나는 (11a)에서는 각 단락이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R-연쇄는 텍스트의 구조화뿐만 아니라 지시 관계의 도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에 (11b)에서는 'Sortie à la dune'라는 주제로 글을 썼으나, '모래 언덕/버들옷/잡초와 개밀/돌회양/선생님' 등이 두서없이 나열되지만 함으로써 글의 의도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Virtanen (1992)은 '단락이라는 경계로 인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다시 말해서 이미 기술된 것과 다음에 이어질 것을 분리하는 부각 효과(highlighting effect)가 나타난다'²⁰⁾고 말한다. 따라서 R-연쇄를 확인하는 최소 단위는 미시 문맥(micro-contexte)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단락이며, 하나의 사건이나 일화를 이루는 장(chapitre)이 상위 단위이고, 지시물의 확인과 해석에 필요하다면 거대 문맥(macro-contexte)이나 문맥 간(inter-contexte), 텍스트 간(inter-texte) 범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넷째, 공지시도 동일 지시도 이루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지시 관계를 표현하는 연상 조응은 A-연쇄나 R-연쇄와 어떤 관계 하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

19) <https://fr.wikipedia.org/wiki>.

20) Virtanen (1992:226) "A paragraph boundary may produce a highlighting effect on the paragraph initial sentence: this is where something starts. Signals of the temporal or locative TSCs(text strategic continuity) may therefore be assumed to have the effects of separating what is to follow from what has gone before."

- (12) a. J'ai acheté un stylo, mais j'ai déjà tordu **la plume**. (Kleiber 2001:7)
 b.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Loc cit.)

정관사의 '유일성 혹은 한정성'에 따라, (12)의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명사구들은 밑줄이 그어진 명사구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로 해석된다. 매우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인 반면 불완전한 한정 기술 용법의 정관사를 요건으로 엄정한 제약을 따르는 이 문법 기제는 새로운 개체표현(조응사)이 문맥상의 다른 표현(연상자)과 화자의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 정보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까지 요구하며 관계를 이룬다.²¹⁾ 그런데 이 두 개체표현은 공지시도 동일 지시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A-연쇄나 R-연쇄와 구별되어야 한다. Chastain (1975)은 이와 같은 연상 조응을 다루지 않았으며, 이를 지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Corblin (1995)은 공지시 및 동일 지시, 연상 관계 등을 적용하여 R-연쇄 개념을 확장한다.

3. Corblin의 제안과 문제

Corblin (1995:171)은 '선행사와 조응사의 관계가 아니면서 우연히 동일한 개체를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의사 소통 중에 동일 지시물이라는 해석이 추론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선행사가 아니면서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는 언어 기반의 지시 연결(*connexion référentielle*)과 의사소통 기반의 지시 연결을 구분한다.²²⁾ 다시 말해서, 선행사와 다른 요소들(대명사, 지시사 명사구, 한정된 조응 명사구) 사이의 관계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 소통 과정에서 출현한 명사구의 우연한 정보 혹은 발화자의 의도에 의해 다른 개체표현들(고유 명사, 비한정 명사구, 완전한 한정 명사구)이 지시적으로 연관되면 동일 지시물(*équi-référent*)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구분을 전제로 Corblin은 다음과 같이 R-연쇄를 다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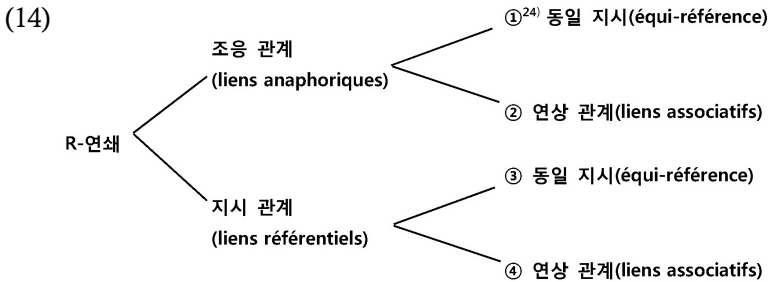
- (13) 담화에서 어떤 표현들(개체표현)이 **지시적으로 연결될 때**, 이들은 R-연쇄를 이룬다.²³⁾

21) 김정석(2015:743).

22) 각주 13 참고.

23) Corblin (1995:172) "Dans un discours, certaines expressions sont *référentiellement connectées*. Elles forment ce qu'on appelle des chaînes de référence."

이 정의는, A-연쇄와 R-연쇄가 별개로 작동하는 해석 기제가 아니라 동일 지시이건 연상이건 지시적으로 관련되(référentiellement connectées)면 연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R-연쇄가 조응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지시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 두 관계는 각각 동일 지시와 연상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그 결과 Corblin (1995:173)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A-연쇄를 R-연쇄에 포함된 개념으로 Chastain을 수정한다.



Chastain이 A-연쇄와 R-연쇄를 구별한 반면에, Corblin은 A-연쇄를 R-연쇄 내에서 맺어지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조응 관계와 지시 관계를 구조화한다. 조응 관계는 대명사나 정관사, 지시사와 같은 다양한 문법 장치에 의해 표출되나 지시 관계는 언어 요소뿐만 아니라 소통 행위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정보와 발화자의 의도, 감정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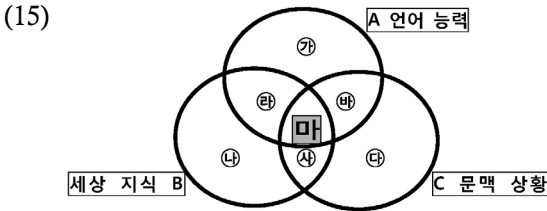
그런데 이 도식은 동일 지시와 공지시를 구분하는 문제 및 연쇄의 비균질성 문제, 조응을 이루지 않는 연상 지시 관계의 존재 문제를 내재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rblin은 공지시와 동일 지시를 구분한다. Corblin (1995:182)은 공지시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두 개의 개체 표현이 텍스트에서 동일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의사 소통 과정에서 각 개체 표현이 우연히 혹은 화자의 의도에 의해 지시물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동일 지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선행사가 있는 조응 관계에서는 공지시이고, 선행사와 조응사라는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동일 지시이다. 위 도식에서 (14 ③)에 해당하는 관계는 동일 지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조응 관계를 이루는 (14 ①)은 선행사와 조응 표현 사이의 관계이므로 동일 지시가 아니라 공지시이다.

둘째, Corblin은 ‘자연어 담화의 R-연쇄는 조응과 지시가 그리고 연상과 지시 확인이 영커어 돌아가기에 혼합적이고 비균질하다²⁵⁾고 말한다. 그런데 자연어 담화

24) 설명 편의상 일련 번호를 붙인다.

가 비균질한 것은 단지 ‘언어와 의사 소통 과정만이 뒤섞여서’가 아니라, 언어 외적 영역에 대한 지식까지도 혼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구조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법과 언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언어 능력(15 A)과 의사 소통과 관련한 담화 문맥이나 언어 외적 상황과 관련된 정보(15 C)뿐만 아니라, 인지 및 경험, 학습에 의해 축적된 세상에 대한 지식(15 B)이 더해져 담화의 생성과 전달, 해석 과정이 완전해진다. 비언어 요소인 ㉠과 ㉡, ㉢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언어적인 ㉣와 문맥상황이 배제된 ㉤, 세상지식이 결여된 ㉬의 경우에는 완전한 의미 생성이나 해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이 세 요소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룬 ㉭에서만 담화의 생성과 해석이 완전해진다.²⁶⁾



(16) C’était une femme américaine fameuse de cette scène.²⁷⁾

- a. En 1963, Warhol/il a œuvré **son** visage.
- b. En 1963, Warhol/il a œuvré le visage de **cette** actrice.

(16)의 담화에 나타난 개체표현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지시물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Marilyn Monroe’가 『7년 만의 외출』이라는 영화에 출현했다는 세상 지식과 ‘son’이나 ‘cette’를 해독하는 언어 능력을 지녀야 한다. ‘Worhol’ 대신에 바로 ‘il’을 사용하거나, 그가 이미 언급된 상황을 모르거나, ‘Worhol’을 알지 못하는 경우 ‘il’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시 관계는 어휘가 지닌 의미 정보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정한 상황



25) Corblin (1995:172) “(…) les chaînes de référence du discours en langue naturelle sont composites et hétérogènes : elles mêlent des liens anaphoriques et référentiels, et des relations d’identité et d’association, (…)”.

26) 소통 이론과 관련하여 이 세 요소만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다. Jakobson (1960:214-215)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정보(message)의 전달만이 아니라, 발화자나 수신자의 감정이나 의도, 상황에 따라 소통의 값은 달라진다.

27) 김경석 & 김서영(2016:372).

혹은 문맥에 따라, 대명사가 앞선 개체표현을 대체하고 지시사가 문맥 혹은 상황 속에 있는 지시 표현이나 지시물과 직접 연관된다는 정보 등이 담긴 문법 장치를 거쳐 복합적으로 산출되고 해석된다.

셋째, Guillaume (1919) 이후, 정관사를 매개로 하여 한 개체표현이 다른 개체표현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명시하는 관계도 조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Corblin의 도식에서의 관건은 연상은 되지만 조음을 이루지는 않고 지시 체계에는 관여하는 ‘비조음 연상 지시 관계(lien référentiel non anaphorique mais associatif)’가 이론적 혹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이다.

- (12) a. J’ai acheté un stylo, mais j’ai déjà tordu **la plume**.
 b.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12)의 예문들은 ‘펜이나 마을’이 상투적 혹은 분의적으로 연상시키는 ‘깃털과 교회’인 조음 현상이다. 모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 정보 및 세상 지식으로 인해, 이 두 개체표현들의 관계는 바르게 해석된다. 반대의 경우인 조음을 이루지 못하는 연상 지시 관계(14 ④)의 존재 여부를 다음의 절에서 추적해 본다.

4. 비 조음 연상 관계의 존재 문제

연상 조음은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현상이므로, 공지시 조음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경석 & 김서영(2014:588)은 이 현상과 관련한 기본 요건 및 형식 제약, 관계 조건/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7) a. **기본 요건**: 새로운 지시물, 새로운 지시물의 정관사, 다른 지시물, 연상 작용
 b. **형식 제약**: 분의어 조건, 방향성 제약, 상투성 제약, 연상 유형에 따른 전이 제약²⁸⁾
 c. **관계 조건/원리**: 분리 조건, 존재 동질성 원리, 돌출성 원리²⁹⁾

28) 형식 제약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cf. 김경석 & 김서영(2016:373)).

i) 분의어 조건: 명사구 X와 Y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고 《Y가 X를 갖는다》 혹은 《X가 Y의 부분이다》라는 형식 문장(phrase de la forme)이 가능할 경우에만(si et seulement si), X는 Y의 분의어이다(Kleiber, 2001:269).

ii) 방향성 제약: 언제나 전체에서 부분으로 연상이 진행된다(김경석 & 김서영, 2014:586).

iii) 전이 제약: 두 지시 표현 사이에 위치해야 하는 중간 단계의 요소가 출현하지 않거나 생략될 경우, 추론의 비약이 불가능하다(Loc cit. 587-588).

기본 요건을 갖추고, 제약이나 조건/원리를 충족해야 하는 연상 조음은 지시와 관련 하여 공지시 조음과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다. 연상 조음은 공지시나 동일 지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개체표현들이 지시 관계를 맺기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첫째, 연상 조음에서는 새로운 지시물이 도입되어 문맥에 있는 다른 지시 표현에 의해 관계가 간접적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대명사나 지시사, 충실 조음 등은 앞선 표현을 공지시한다.

(18) a.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Il/le village/ce village** était situé au bord de la Seine.

b.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elle/?cette église/?son église/ ?une 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³⁰⁾

(18b)에서는 밑줄 친 표현과 굵은 글씨체의 개체표현들 사이의 지시 관계는 추론될 수 있더라도 문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l'église' 외에 대명사나 지시사, 소유사, 비한정 표현은 연상도 조음도 되지 않는다.

둘째, 연상 조음은 분위성이나 상투성을 전제로 하지만, 공지시 조음에는 이와 같은 제약이 없다.

(19) a.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le supermarché**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b. Nous nous étions inscrits à un circuit "Connaissance de la Bourgogne romane". La région était littéralement couverte de petits édifices dont certains remontaient au X^e siècle. Nous partîmes de bon matin car le programme était chargé.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Charolles, 1994:79)

29) 관계 조건이나 원리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cf. 김경석 & 김서영(2016:373)).

i) 돌출성 원리: 담화에 처음 출현하는 요소는 다른 요소와 동등하게 돌출되나, 한정 명사구가 되면 더 많이 돌출되고 선행사나 술어, 문맥 등의 정보에 의해 화제화되면 최대치의 돌출성을 갖는다(Krahmer, 1998:211).

ii) 분리 조건: 조음사의 지시물은 연상자의 지시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Kleiber, 2001:242).

iii) 존재 동일성 원리: 두 지시물 사이의 분리성은 조음사의 지시물이 연상자의 지시물과 동일한 존재 유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다(Kleiber, 2001:247).

30) Charolles (1994:69)은 대명사에 의한 연상 조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Albert n'est plus *guitariste* dans l'orchestre du lycée depuis qu'on **la** lui a volée dans le métro."에서 'la'는 'guitariste'에서 추론된 'la guitare'를 지시하고 대명사 연상 조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19a)에서처럼 ‘서양 마을에 교회 하나’는 상투적이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나 슈퍼마켓’은 이 틀을 벗어나므로 수용되지 않는다. (19b)처럼 Charolles (1994:79)은 문맥을 적절히 가다듬고 확장하면 문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니³¹⁾ 일반적으로 어휘들 간의 상투성이나 분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상 관계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 역시 연상의 조건을 이루지 못해 지시도 조응도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연상 조응은 주로 문맥 내적 조응(endophore)과정인 반면에 공지시 조응은 다른 문맥에 있는 요소와도 연관(exophore)될 수 있다. 연상 조응이 내조응인 이유는 발화자나 수신자 모두가 선행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상 조응의 전이 불가능성(non-transitivité)’은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비약할 수 있으나 수신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전이란 개체표현들이 단계적으로 조응되지 않고 중간 매개 표현이 생략되거나 행간에 숨어버린 경우이다.

(20) a.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ouverte.)

L'autel était recouvert de fleurs (Kleiber 2001:203)

b. * Nous nous approchâmes d'une maison. (**La porte** était fermée.) **La poignée** était rouillée (Loc. cit.)

(20)에서처럼 ‘마을’이나 ‘집’에서 ‘교회’나 ‘현관문’을 거치지 않고 ‘제단’과 ‘손잡이’로 넘어가면, 수신자가 해석할 수 없거나 논리적 비약에 대해 과도한 추론을 해야 한다. Chastain이 R-연쇄를 도출했던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문맥을 상정할 경우, 하나의 문맥에 있는 ‘마을’과 다른 문맥의 ‘교회’는 연상되더라도 조응을 이루지 못하고, 수신자는 (21b-B)에 있는 정관사를 완전한 한정 기술로 간주하고 앞선 문맥이나 언어 외적 상황에서 대상을 찾는다.

(21) a. Jean arriva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ouverte.

b. A : J'ai entendu la nouvelle : Jean est arrivé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ouverte.

B : #(Je dis à mon ami) **L'église** était ouverte.

(21b)와 같이 ‘Jean이 마을에 도착하니 교회가 열려 있더라’라는 소식을 친구에게 알리면서 ‘Jean이 마을에 도착한 사실’을 행간에 묻거나 친구가 ‘Jean’의 근황에

31) Charolles (1994:70)은 상투적이라는 개념이 1~2문장으로 지나치게 압축된 엄정 문맥에서만 유효하나, (19b)처럼 문맥을 적절히 확장할 경우 문법이 허용하는 담화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수신자인 ‘내 친구’는 (21b-A)’에 있는 ‘마을’과 (21b-B)에 표현된 ‘교회’를 지시적으로 바르게 연결할 수 없으므로 R-연쇄를 이루지 못한다.

넷째, 연상 조음은, 공지시 조음에 비해, 문맥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연상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백과사전적 지식까지도 필요로 한다.

- (22) a. #Jean aime la Corée. **La capitale** se trouve au bord de la mer.(김경석 & 김서영, 2014:591)
 b. #Je suis arrivé dans un village. **Le temple** est fermé.(Loc cit.)

(22a)의 ‘한국’과 ‘수도’는 연상 조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발화이고, 프랑스인 들은 ‘한국의 수도는 바닷가에 있다’고 연상적으로 해석하지만, ‘참인 명제는 아니다. (22b)에서도 상투적으로 마을마다 ‘절’이 있는 아시아인들에게는 상투적이나 프랑스 인에게는 이상한 문장으로 비친다. 연상 가능하지만, 조음 관계도 R-연쇄도 이루지도 못한다.

다섯째, Kleiber (2001)는 연상이나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음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지시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23) a. ? Max entre. **Les yeux** sont hors de leurs orbites. (Kleiber 2001:224)
 b. ? Paul est un fan de Marilyn Monroe. **La beauté/l'éclat** l'éblouit. (Ibid. 230)
 c. ? Cette machine marche bien. **L'invention** a nécessité beaucoup d'effort. (Ibid. 236)
 d. ? Paul entra. **Les paroles** réveillèrent toute l'assemblée. (Ibid. 52)
 e. ? Il ramassa une boîte. **La matière** était inconnue. (Ibid. 52)

김경석 & 김서영(2016:377-378)에서도, (23a)의 ‘les yeux’는 ‘Max’의 신체 부위이며, (23b)의 ‘la beauté/l'éclat’는 ‘Marylin Monroe’의 내적 속성에 해당하고, (23c)의 ‘l'invention’은 ‘cette machine’와 관련된 사건 명사구이며, (23d)의 ‘les paroles’은 ‘Paul’이 행하는 연설 행위이고, (23e)의 ‘la matière’ 역시 선행한 명사구 ‘une boîte’의 구성 성분으로 추론될 수 있지만, 이 구문들은 조음이나 지시

체계와는 무관하다.³²⁾

지금까지 연상과 관련한 다섯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비조용 연상 지시 관계의 잠재적 대상을 검토한 결과, ‘비 조용이면서 연상되는 지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상되면 반드시 조용 관계를 이루어야 문법이 수용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논거가 타당하다면, 조용을 이루지 못하는 연상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상되면 반드시 조용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연상 관계는 반드시 조용되므로 도식 (14 ④)와 같은 지시 관계의 하위 요소인 연상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Corblin이 구조화한 R-연쇄에서 (14 ④)가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전체 구조는 다른 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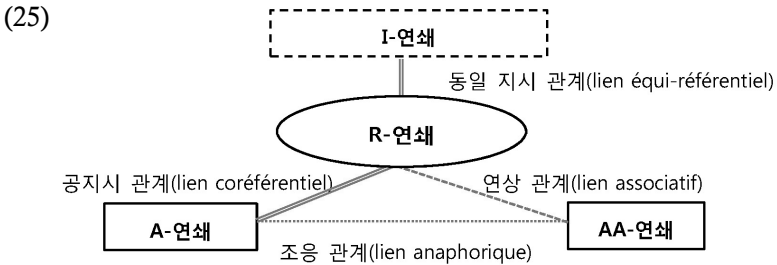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했던 예문 (4)를 들어 설명하자면, (24)와 같은 세 유형의 관계가 확인된다. 그중 하나는 공지시 관계에 의한 연쇄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 소통 과정이나 실재 세계의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 지시로 해석되는 관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연상 관계에 의거한 연쇄이다. 이를 (14 ③)을 ‘직관적 (동일 지시) 연쇄(châînes d'équi-référence intuitives: I-연쇄)’, (14 ④)를 ‘연상 A-연쇄(châînes d'anaphore associative: AA-연쇄)’라고 하면, 공지시에 의한 A-연쇄와 연상에 의한 AA-연쇄, 동일 지시를 바탕으로 하는 I-연쇄가 삼각형 모양으로 R-연쇄를 구축한다.

- (4) a. Originaire du Tadjikistan, **Muyassar₁** a été tabassé en décembre 2011 par des hooligans du Spartak Moscou. **Il** subit de plein fouet le racisme dont sont victimes les Tadjiks en Russie. Grand et athlétique, *le buste droit, la voix posée*, **Muyassar₂** dégage une certaine fierté.
- Le jeune homme** est né au Tadjikistan il y a 25 ans, dans la région montagnarde du Pamir. En 2006, **son** diplôme de commercial en poche, **il** met le cap sur Moscou.

- (24) a. 공지시에 의한 A-연쇄: {**Muyassar₁** ... **il**} / {**Muyassar₂** ... **le jeune homme** ... **son** ... **il** ...}
- b. 연상에 의한 AA-연쇄: {le buste ... la voix ... **Muyassar₂**}
- c. 동일 지시에 의한 I-연쇄: : {**Muyassar₁**} = {**Muyassar₂**}

32) Kleiber (2001:242-247)는 이 예문들이 비수용적인 것은 ‘조용사의 지시물이 연상자의 지시물로 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분리 조건과 ‘분리는 조용사의 지시물이 연상자의 지시물과 동일한 존재 유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존재 동질성 원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의사 소통 정보와 세상 지식에 따라 별개의 개체표현인 ‘Muyassar₁’은 ‘Muyassar₂’와 동일 지시된다고 직관적으로 해석된다. 고유 명사 사이뿐만 아니라 (9)에 나타난 한정 명사구 ‘le docteur Lauben’과 비한정 명사구 ‘un docteur’ 사이의 관계, ‘un boeuf’를 ‘l’animal’로 대체하는 방식의 불충실 명사구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직관에 따라 추론됨으로써 동일 지시로 해석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 지시에 의거하여 I-연쇄를 형성하고, 조음을 이루는 명사 및 대명사, 지시사 등은 공지시 관계에 따라 A-연쇄를 이루며,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정관사를 매개로 ‘le buste/la voix’³³⁾은 ‘Muyassar₂’와 AA-연쇄 관계를 맺으면서 R-연쇄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14)에서처럼 R-연쇄가 조음 관계와 지시 관계로 나뉘고 이들이 다시 동일 지시와 연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A-연쇄는 공지시 관계와 연상 관계로 분리되고 지시 관계에는 비조음 연상 지시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 지시의 경우만 남기 때문에 이를 I-연쇄로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된 구조로 정리된다.



R-연쇄를 중심으로 삼각구조로 설정한 것은 이 형태가 가장 견고하고, R-연쇄의 값이 A-연쇄와 AA-연쇄, I-연쇄가 상보적이 아닌 대위적³⁴⁾으로 협력하면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두 요소는 조음을, I-연쇄와 A-연쇄는 공지시 혹은 동일 지시를 공통 분모로 한다. I-연쇄는 고유 명사나 불충실 조음처럼 지시적으로 독립된 개체표현이 의미적 혹은 화용적으로 언어 외적 세계에 위치하는 지시물과 동일한 대상이 된다는 인지적 추론 과정의 결과로 지시 체계에 들어온다.

33) Riegel (1994:233-235)은 신체 부위 명사구가 문장의 범위를 벗어나면 연상 조음을 이루지 못하지만, 단일 문장에서는 조음을 허용하는 특이성을 추적한다.

34) ‘대위’란 음악 용어로 음표와 음표,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멜로디만 때로는 반주만 진행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작곡 기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각 연쇄들이 지시 관계를 위해 조화롭게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를 차용한다(김경석 & 김서영, 2016:370).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지시에 관한 연쇄 개념을 살펴보았다. 지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Chastain (1975)은 R-연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A-연쇄와 R-연쇄는 때로는 함께 때로는 상보적으로 기능한다. Corblin (1995)은 Chastain의 개념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수정하여 확장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Chastain과 Corblin의 논의에서 불완전하거나 바르지 않아 보이는 가설을 추적하고 수정을 시도하였다. R-연쇄의 개념적 근거는 명확하나 이론적 및 현상적으로 반드시 서로 다른 담화에 위치한 개체표현들이 연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Corblin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A-연쇄와 R-연쇄에 각각 지시 관계와 연상 관계가 있다는 Corblin의 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상 조응을 검토한 결과 ‘비조응 연상 지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결과 R-연쇄는 연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Corblin (1995)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적 개체표현들을 인지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감지하는 직관적 동일 지시 개념을 사용하여 I-연쇄로 설정하고, 이 요소와 A-연쇄, AA-연쇄가 R-연쇄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이루면서 대위적으로 협력하여 담화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예측한다.

References

- 김경석. (2014). ‘공지시 조응과 연상 조응’, 『인문학지』, 49집, 23-41.
- _____ (2015). ‘국어와 프랑스의 연상 조응’, 『어학연구』, 51권 3호, 727-745.
- 김경석 & 김서영. (2014). ‘프랑스어 연상 조응에 대하여’, 『어학연구』, 50권 3호, 577-600.
- _____ (2016). ‘조응에서 ‘연상’과 ‘추론’의 대위적 상관성’, 『어학연구』 52권 3호, 369-392.
- 박여성. (2016). ‘개념사 연구: 역사 서술과 언어학의 상호작용’, 『언어와 소통: 의미론의 쟁점들』, 천화, 219-283.
- Charolles M. (1988). «Les plans d'organisation textuelle : périodes, chaînes, portées et séquences», *Pratiques* 57, 3-13.
- _____ (2009). «Les cadres de discours comme marques d'organisation des discours», dans F.Venier (éds) *Tra Pragmatica e Linguistica Testuale*. Edizioni dell'Orso, Alessandria, 401-420.
- Chastain R. (1975). «Reference and context», dans K.Gunderson (éds) *Language, Mind, and Knowledge, volume VII of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 194-269, Minnesota UP.
- Corblin F. (1995). *Les formes de reprise dans le discours. Anaphores et chaînes de référe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Guillot C. (2009). «Ecrit médiéval et traces d'oralité : l'exemple de l'adverbe *or(e)*» dans E.Havu et al. (éds), *La langue en contexte. Actes du colloque Représentation du sens linguistique IV*, Helsinki, Société Néophilologique, 267-281.
- Heurley L. (1997). «Processing units in written texts: paragraphs or information blocks?», dans J. Costermans & M.Fayol(éds) *Processing interclausal relationships: studies in th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text*, 179-200.
- Huang Y. (2002). *Anaphora: a cross linguistic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Jakobson R. (1960). *Closing statements: linguistics and poetics, style in language*, T.A.Sebeok, New-York.
- Kleiber G. (1994). «Anaphore associative, antécédent et définitude», dans C.Schneedecker (éds), *L'anaphore associative(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153-173.
- _____ (2001). *L'anaphore associative*, Paris : PUF.
- Krahmer, E. (1998). *Presupposition and anaphora*, Standard: CSLI publication.
- Marslen-Wilson et al. (1982) «Producing interpretable discours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ference», dans R.J. Jarvella (éds), *Speech, place and action*, NewYork, J. Willey and Sons, 339-378.
- Reichler-Beguelin et als. (1988). *Ecrire en français. Cohésion textuelle et apprentissage de l'expression écrite*, Lausanne, Delachaux et Niestlé.
- Riegel M. (1994). «Article défini, anaphore intra-phrastique et relations partie-tout», dans C. Schneedecker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233-250.
- Schneedecker, C. (2014). «Les chaînes de référence : présentation», *Langage* № 195, Armand Colin, 3-22.
- Toole J. (1996). «The effect of genre on referential choice», dans T. Fretheim & J. K. Grundel (é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vility*, John Behjamins Publishing, 262-290.
- Vigier D. (2005). «Les adverbiaux praxéologiques détachés en position initiale et leur portée», *Verbum XXVII*, 3, Nancy, P. U..
- Zufferey S. and Moeschler J. (2012). *Initiation à l'étude du sens : sémantique et pragmatique*, Auxerre, France, Éditions Sciences humaines, 143-153.

김경석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자우편: kskim@cbnu.ac.kr

접수일자 : 2017. 10. 26

수정본 접수 : 2017. 12. 1

게재결정 : 2017. 12. 18